

ESG와 블랙야크

- BYN 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로젝트 -



UN SDGs 자문위원
BYN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BASECAMP IN YOUR NEW LIFE, BYN



ESG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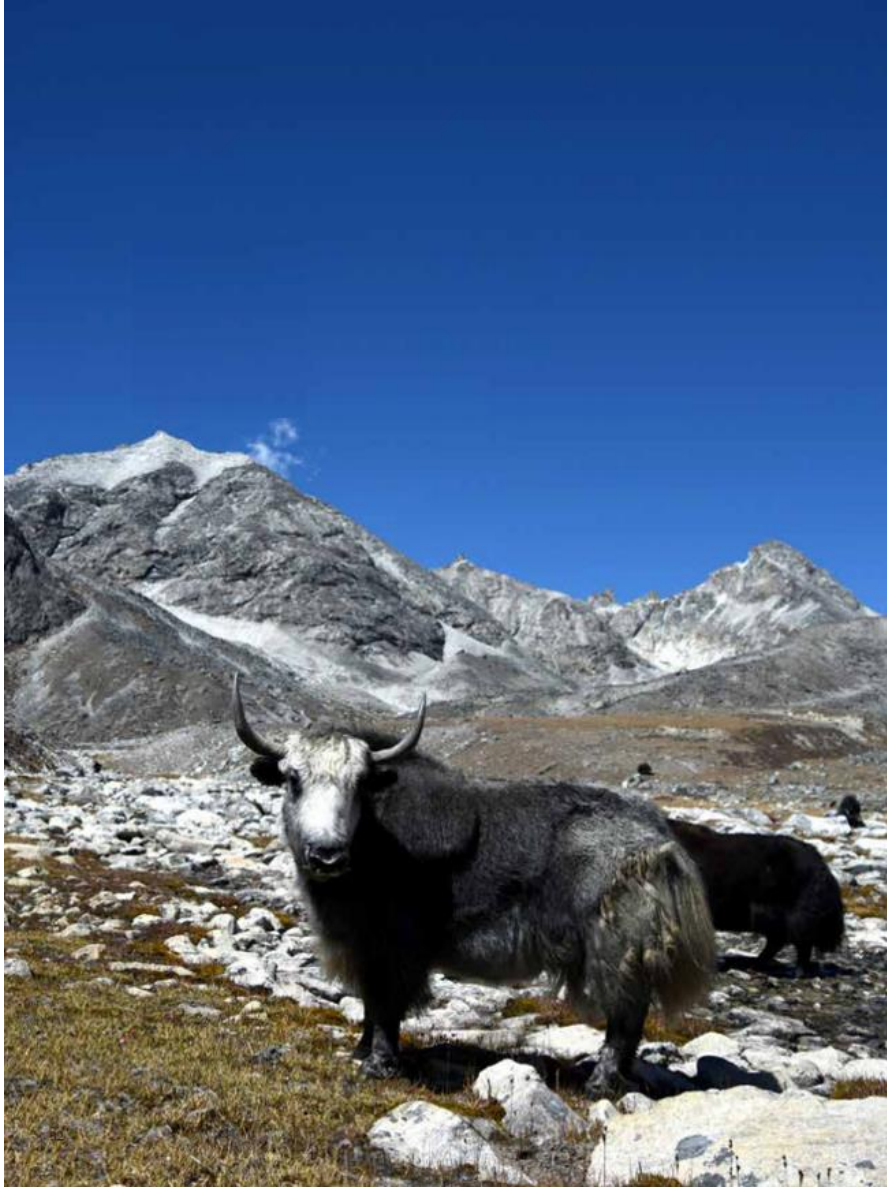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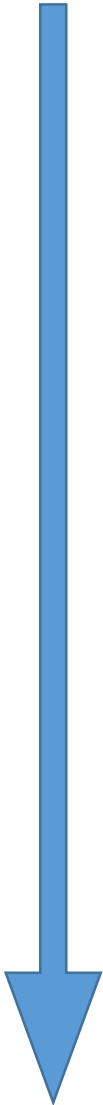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히말라야를 오르내리는 유일한 동물 야크는
시기마다 털갈이로 친환경 보온 소재(야크헤어)를 제공하고
풀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와 이파리를 뜯어먹어
인간과 자연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과 함께 험준한 고개를 넘으며 짐을 운반해 주고,
배설물은 나무가 없는 고지대의 소중한 천연 연료가 되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유지시킵니다.

히말라야의 자연에서 평생을 지낸 야크의 명품 가죽은
세계 우수 브랜드들의 제품으로 재탄생하여
사회적 환원으로 삶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블랙야크는 ESG 입니다.



년도

비고

C
S
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950년~

년대	시대별 CSR 개념 변화
1950~1960	기업 경영인의 자발적인 자선 활동
1960~1970	기업이 산업공해 문제 등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단계
1970~1980	기업이 사회 윤리적 요구에 반응하는 단계
1990~2000	성숙된 사회에 맞는 '기업시민의식'을 실천하는 단계

C
S
V Creating
Shared
Value

2006년~

- 2006년, 미국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HBR(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
-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프로그램은 외부압력에 대응하고 기업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
- 공유가치창출(CSV)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곧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S
D
G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00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발전목표. (2000~2015년 시행)
- 
- 2015년 MDGs의 이행 시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12년 6월 “리우+20”>회의에서 17개의 글로벌 우선순위인 SDGs를 도출
 - 2015년 9월 제 70차 UN총회에서 지구촌이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채택
- 

E
S
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2004년~

- ESG 용어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
- 2006년 국제 투자기관 연합인 UN PRI가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
-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ESG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 2020년 자산운용사 BlackRock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ESG 중요성 강조.



**국내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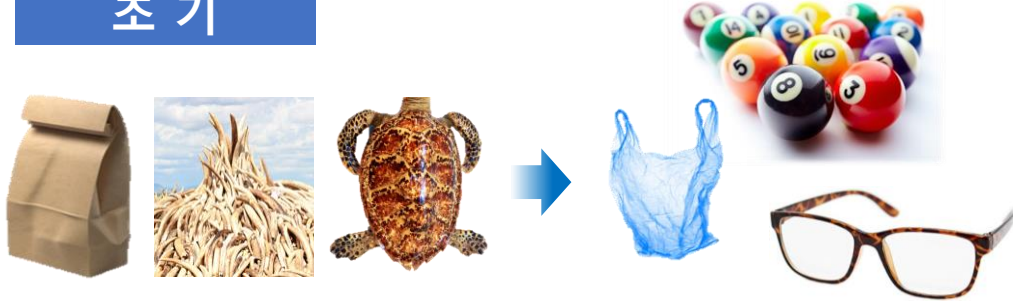
1520년 8월에 버려진 페트병이 있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ΠΛΑΣΤΙΚΟΣ (→PLASTIC)

그리스어 "성형이 가능한"

초기



동식물을 가공해서 만들던 제품을 대체해준 꿈의 소재

현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협하는 오염 물질

온실 효과

태양 빛으로 발생한 열이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만나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



태양광선



기체 종류별 온실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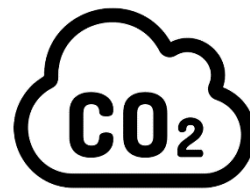
수증기(60%)

이산화탄소(25%)

기타(15%)

인간의 산업활동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치(증발↔강수)

산업 활동량에 따라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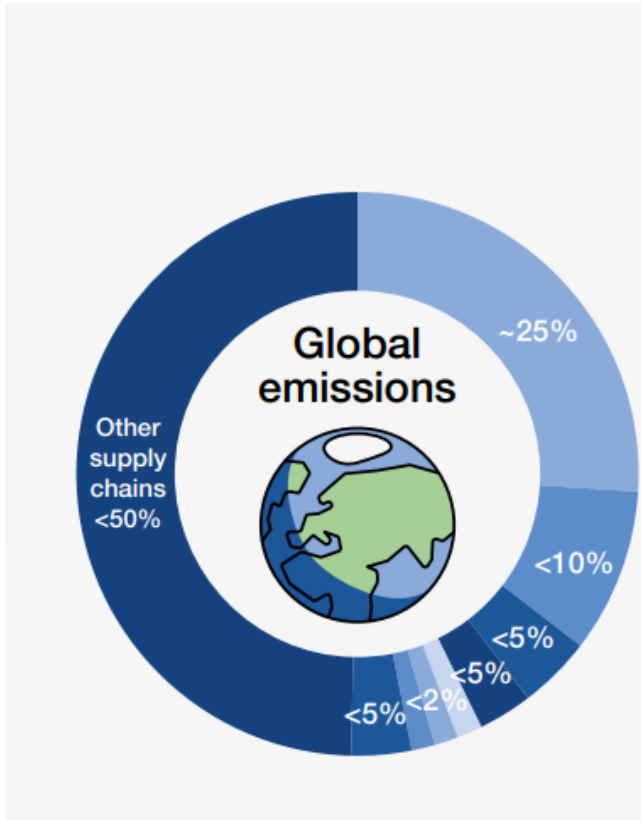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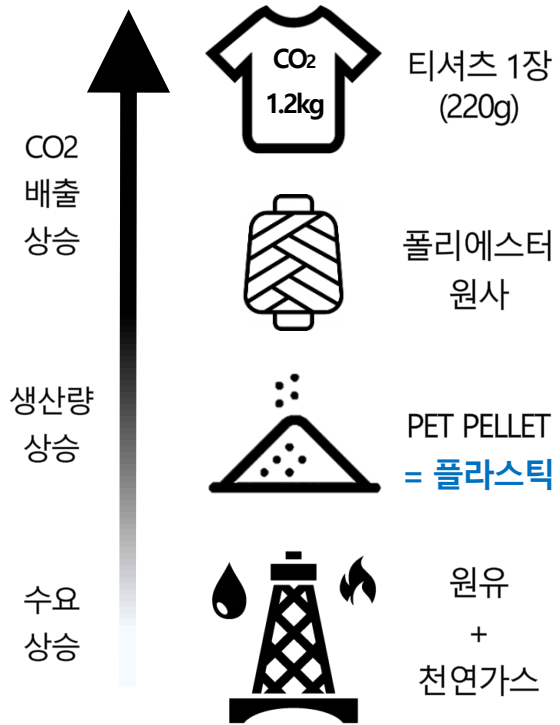


화학
가공



-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
- 자연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으며 지구 온난화 가속
- **탄소 배출량과 자연 흡수량이 동일한 탄소중립의 필요!**

패션산업의 환경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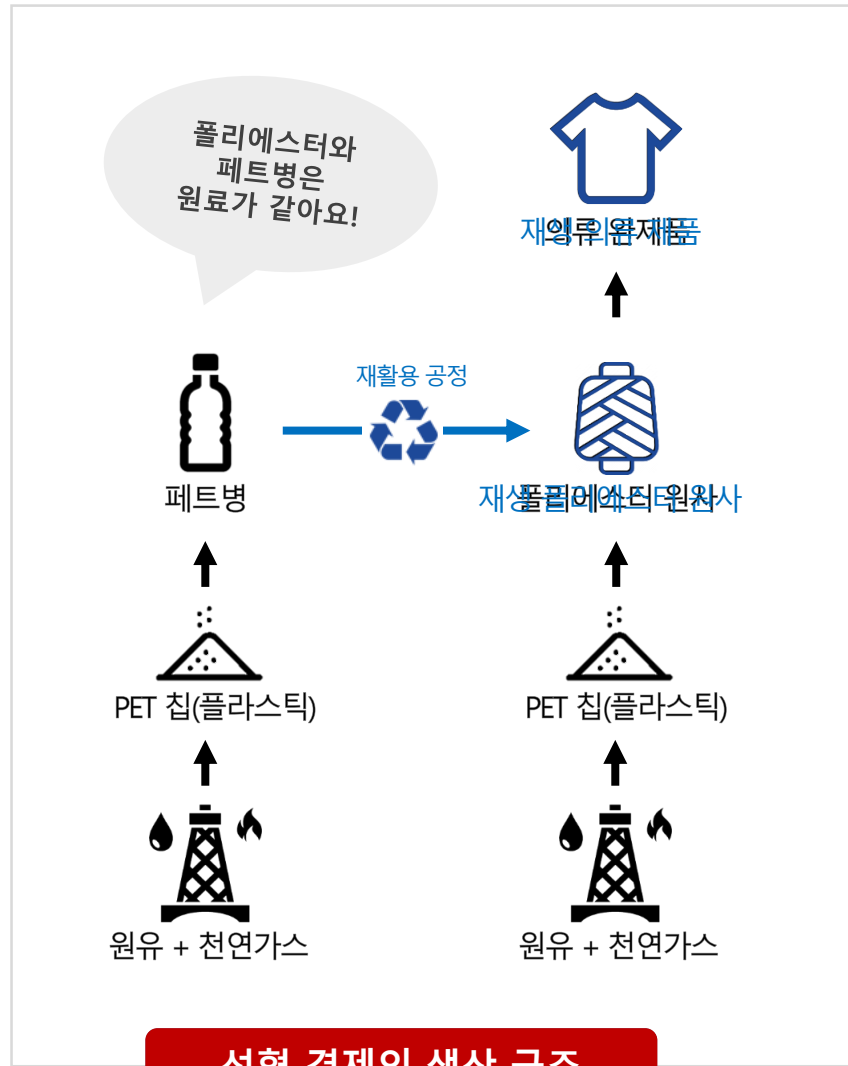
Food	Agriculture	Freight	Manufacturing
Construction	Cement, steel, plastics, ...	Freight	Manufacturing
Fashion	Synthetics, textiles, garments, ...	Freight	Manufacturing
FMCG	Chemicals, plastics, ...	Freight	Manufacturing
Electronics	Mined metals, ...	Freight	Manufacturing
Auto	Steel, aluminium, batteries, ...	Freight	Manufacturing
Prof. services	Business travel	Offices	
Other freight	Agriculture	Shipping	Rail Aviation

(선형 경제) 패션 산업 구조

패션산업의 주요 원자재 폴리에스터,
그 원료는 화석연료를 가공한
합성 수지(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산업 순위
(식품 - 건설 - 패션 -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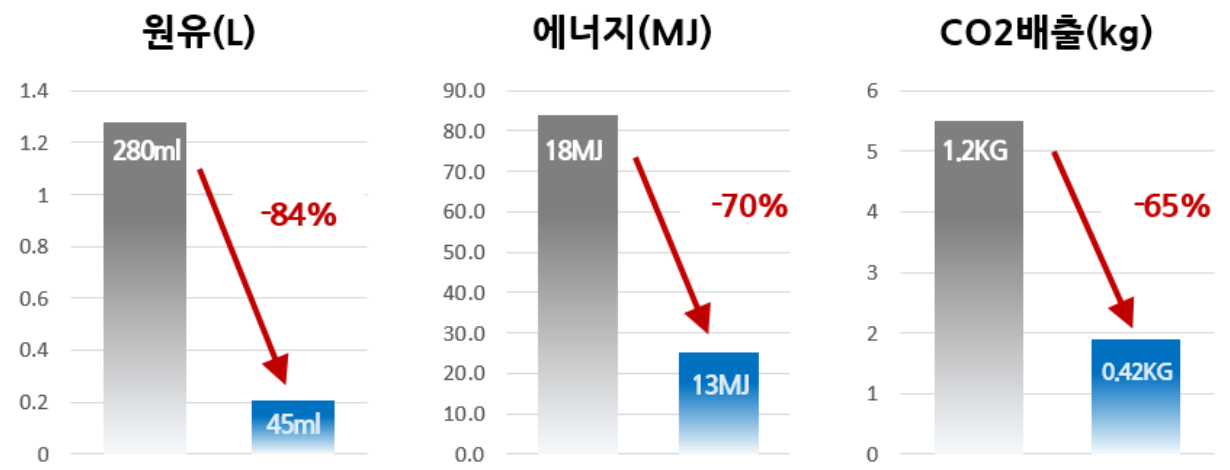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친환경 효과



선형 경제의 생산 구조

티셔츠 1장 생산에 따른 소요량 비교

신재 재활용



The use of crude oil in plastic making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Bruno GERVET. 2007.
The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2008.






페트병을 재활용(rPET)한 폴리에스터가 해결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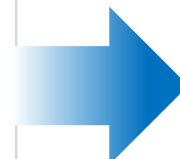
해외 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



의류용 장섬유
원료 PET
7,200 t 수입

 4,680 t
(65%)


 2,520 t
(35%)



(다른 나라 살리는)
"지속가능한 패션!"

대한민국 플라스틱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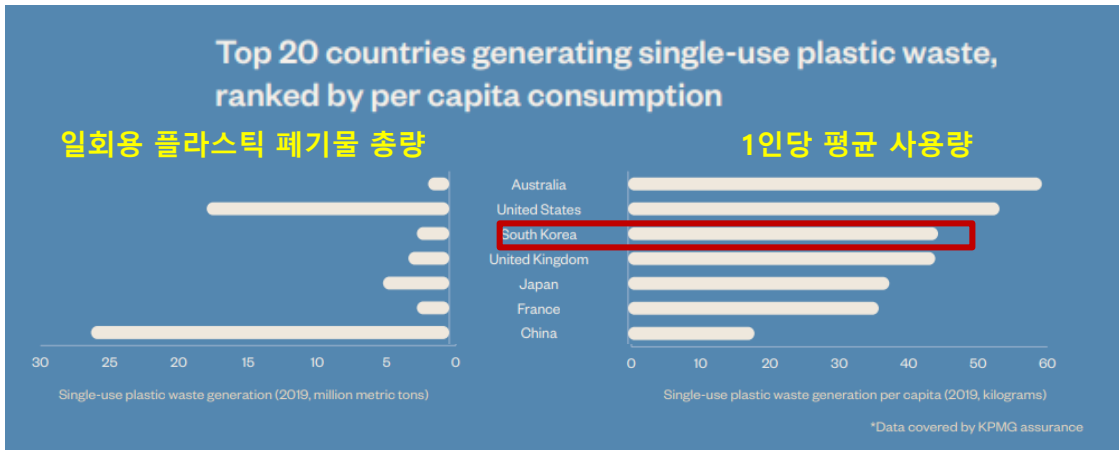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
(Minderoo foundation)
보고서 2020

1인당 연간 평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대한민국 전세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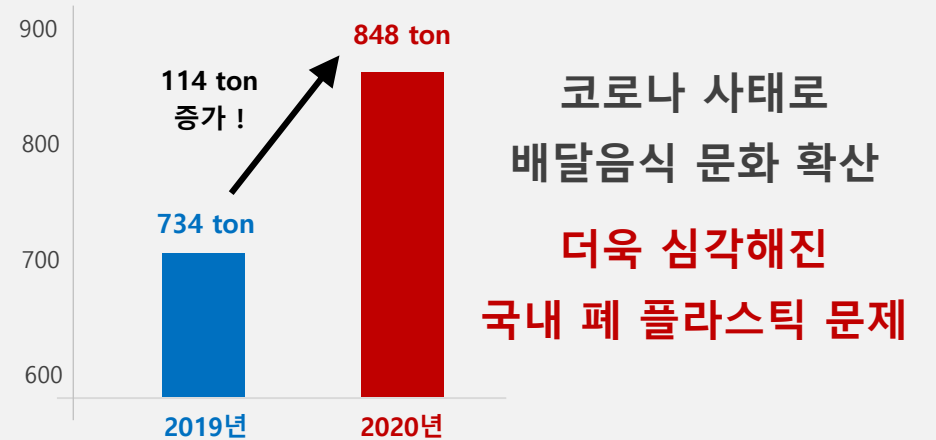
2019년 배출량 기준.



충남대학교/그린피스. <플라스틱 코리아>. 2019



대한민국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량 (2019년 → 2020년)



통계청, 환경부.

재활용의 첫 단추 배출 / 수거가 문제

배출



수거



재활용

패션

자원순환 단계별 문제점



국민

“잘 재활용 되는거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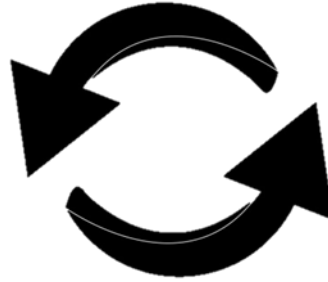
- 제품별 복잡한 재질 구조
- 한 개만 섞여도 전부 오염
- 교육/인식 부족
- 재활용 제품 불신



수거 업체

“하치장에 가면
섞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별도 수거 방식의 부재
- 수거에 급급
- 민간업체 위탁이 대부분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재활용 업체

“투자대비 수익이 안돼요”

- 투명 PET 별도설비 없음
- 설비 투자 비용 부담
- 투명 PET 수요 적음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원사 업체

“한국 rPET는 품질이 안 나와요”

- K-rPET 품질 기준 미달
- 수입 rPET의 품질력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패션 업체

(수입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입니다!”

- rPET 선택 다양성의 제한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시장성의 불투명
- 적극적인 변화 의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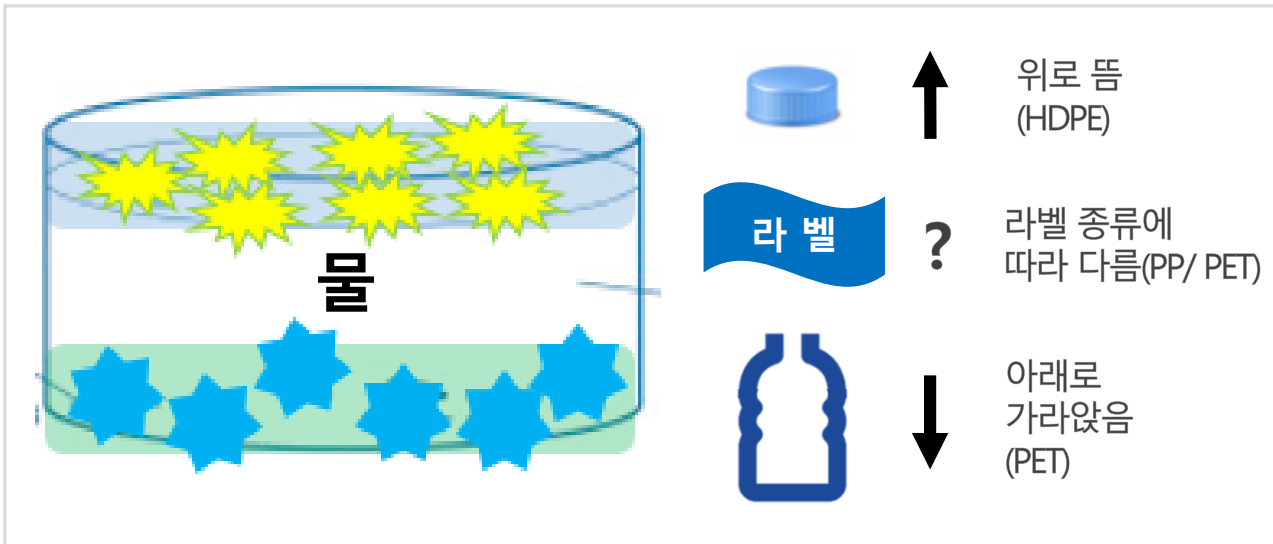
분리 배출

> 분리배출 + 라벨 제거 미비

공동주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플레이크를 물에 띄우는 비중분리 과정으로
< 페트병 몸체 vs 뚜껑 > = 분리 가능하나,
< 페트병 몸체 vs 라벨 > = 완전한 분리 불가능



2021년 1월



2021년 6월

문제점 - 수거, 선별, 재활용 과정간 오염



공동주택(아파트) 수거



일반주택(빌라, 단독) 수거



MBC 뉴스투데이. 2019.12.13.

- 분리배출이 잘 되어도, 수거 과정에서 혼합 / 오염

낮은 부가가치의 재활용



MBC 뉴스프리데스크. 2021.12.22. <배달은 선진국...재활용은?>



PET 재활용 업체(플레이크 제작 공장) 수 선별 작업



국내 투명 페트병은
충전재, 노끈 등의 원료로
저품질 재활용이 이루어짐

자원순환 단계별 문제점



국민

“잘 재활용 되는거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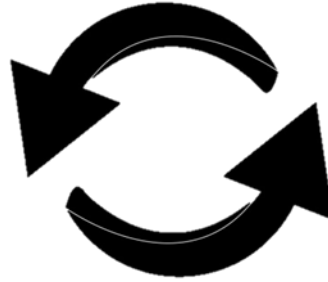
- 제품별 복잡한 재질 구조
- 한 개만 섞여도 전부 오염
- 교육/인식 부족
- 재활용 제품 불신



수거 업체

“하치장에 가면
섞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별도 수거 방식의 부재
- 수거에 급급
- 민간업체 위탁이 대부분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재활용 업체

“투자대비 수익이 안돼요”

- 투명 PET 별도설비 없음
- 설비 투자 비용 부담
- 투명 PET 수요 적음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원사 업체

“한국 rPET는 품질이 안 나와요”

- K-rPET 품질 기준 미달
- 수입 rPET의 품질력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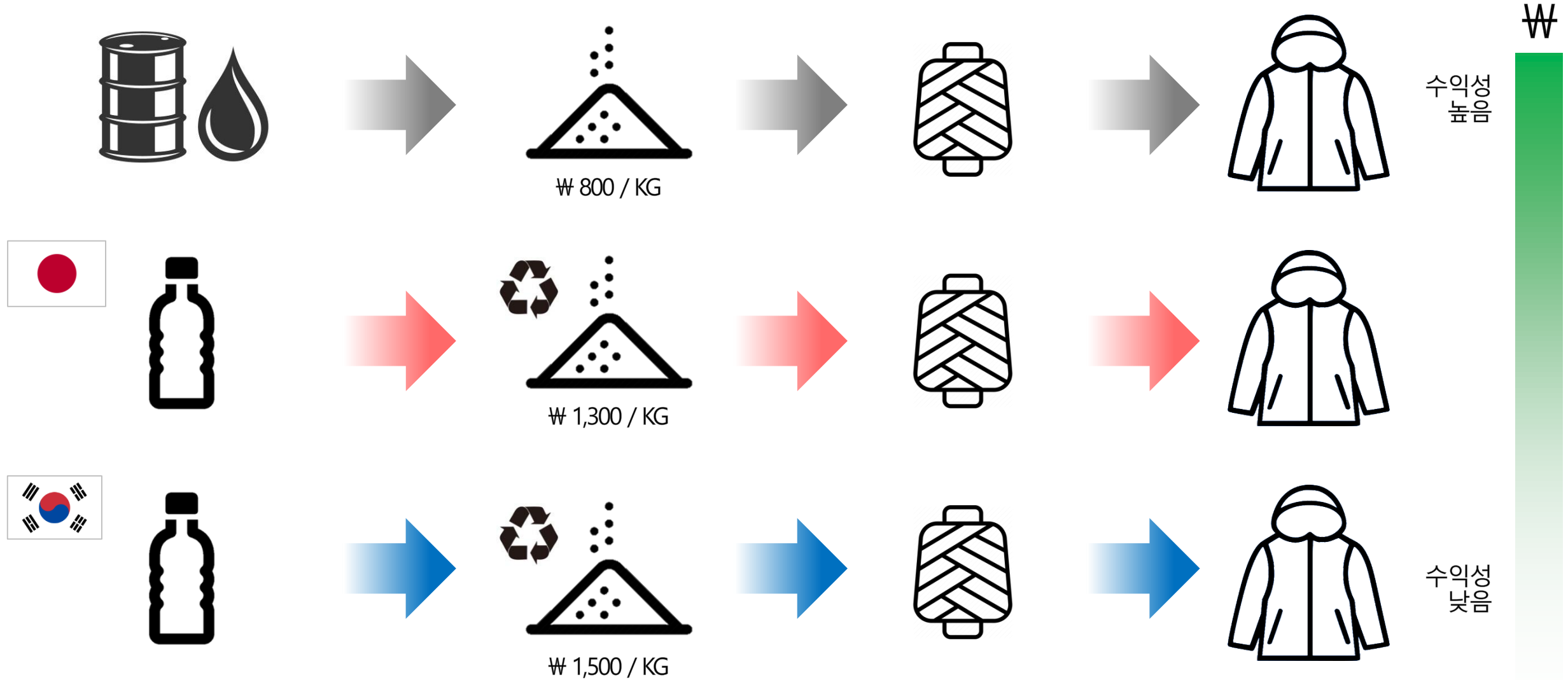


패션 업체

(수입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입니다!”

- rPET 선택 다양성의 제한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시장성의 불투명
- 적극적인 변화 의지 없음

기업의 개선의지 저조



한국 재활용 PET 제품의 낮은 수익성으로 개선의 어려움

국내 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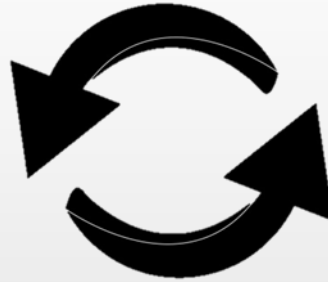
국민

“잘 재활용 되는거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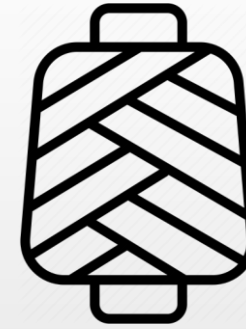
수거 업체

“하치장에 가면
섞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 업체

“투자대비 수익이 안돼요”



원사 업체

“한국 rPET는 품질이 안 나와요”



패션 업체

(수입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입니다!”

국내 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업회수 페트병 재활용



별도 수거

"안 섞이게 직접 배송합니다"



생수 페트병

"깨끗한 PET만 모았습니다"



재활용 공정

"투명 PET 별도설비 투자했어요"

SM티케이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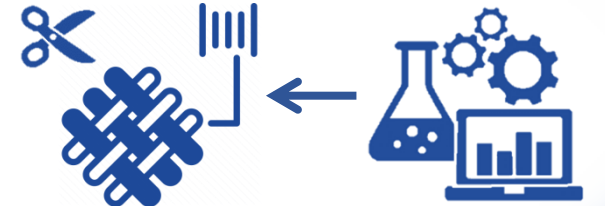
원사 업체

"국내유일 K-rPET 장섬유 원사입니다"



BYN

BLACKYAK



R&D + 소재개발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담습니다"

국내 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업회수 페트병 재활용



별도 수거

"안 섞이게 직접 배송합니다"



재활용 공정

"투명 PET 별도설비 투자했어요"

SM티케이케미칼



원사 업체

"국내유일 K-rPET 장섬유 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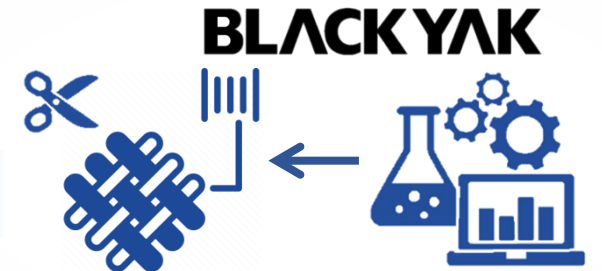


생수 페트병

"깨끗한 PET만 모았습니다"



"우리 페트병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패션"



R&D + 소재개발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담습니다"

국내 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국민 배출
페트병
재활용



별도수거

"혼합, 오염없는 배송"



재활용 공정

"투명 PET 별도설비 투자했어요."

SM티케이케미칼



원사 업체

"국내유일 K-rPET 장섬유 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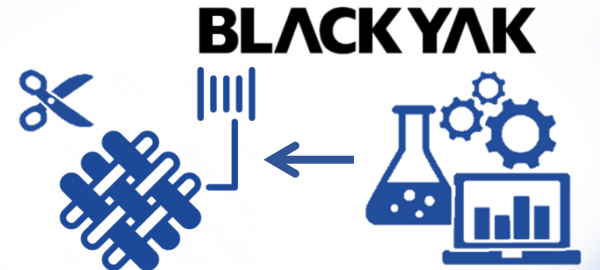


국민

"투명PET는 분리배출!"



"우리 페트병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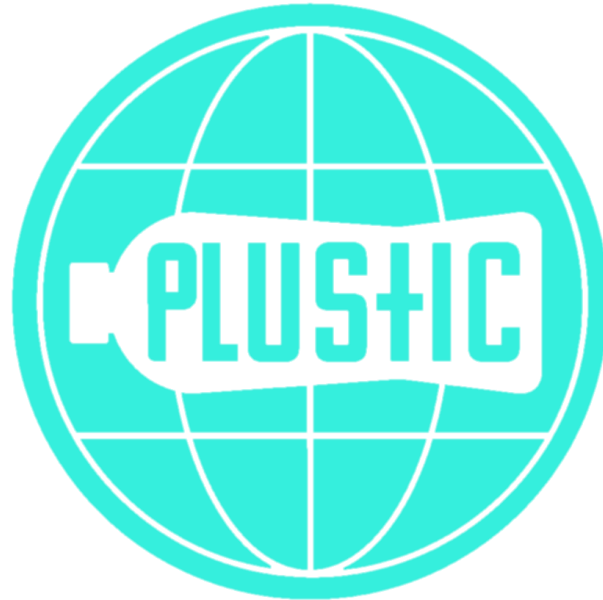


R&D + 제직/편직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담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페트병이
대한민국에 플러스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BYN자원순환체계 “플러스틱(PLUSTIC)”



MOU 및 협업 파트너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독립운동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독립운동

생활을 위한 제품을 위한 페트병 수입, 이제 막아야 합니다.
100% 우리 페트병으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게
'뚜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시작합니다.

- 1 뚜명 페트병 재활용하기
- 2 페트병에서 3 페트병으로 분리하기
- 3 페트병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기
- 4 재활용된 PET를 사용하여
- 5 100% 재활용된 PET를 사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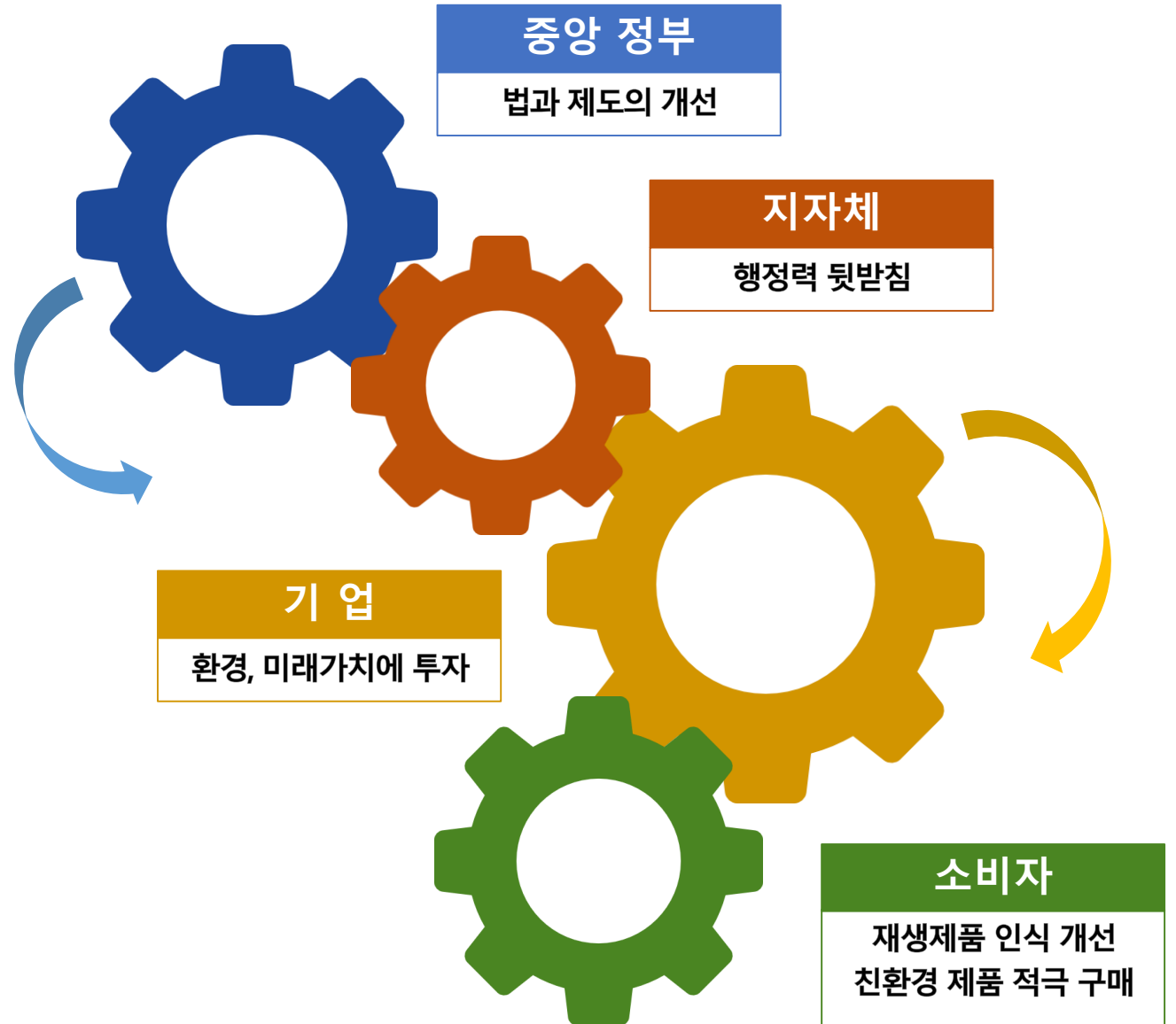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과 지자체, 정부와 기업 다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LACKYAK ncu

WE WON'T USE NEW PLASTIC STU FROM 2023!

PLASTIC

BEWAR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21(COP 26)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영국 글래스고) '한국관' 부스 참여
- 대한민국의 순환 경제 & 탄소 중립 사례로 소개



한국관 부스, COP26.



한정애 환경부 장관. 2030 국가 탄소 감축목표(NDC) 브리핑. COP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21(COP 26) - 영국 글라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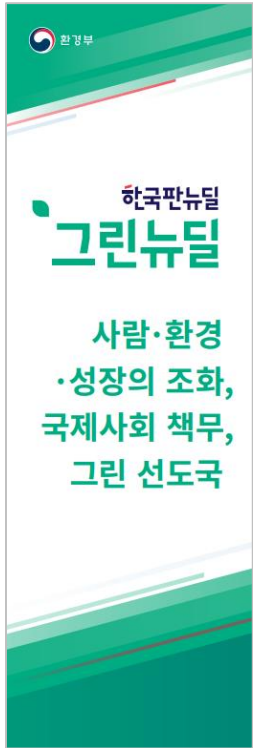


BYN자원순환체계 전시. CO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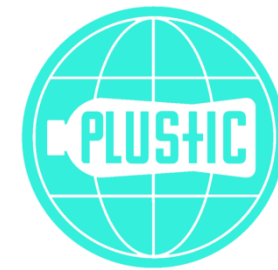
해외 VIP 소개. COP26

결론 및 제언



衣食住

인간 생활의 삼대 요소인 옷,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하영

ESG경영이 바른 길(正道)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정상에 오르겠다는 경쟁의 관점이 아닌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하며 환경과 경영 두 가지 모두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이다.

히말라야의 '블랙야크'처럼
우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